서점용 만화출판의 한 가능성

국내최초로 개인전집 낸 만화가 김수정씨

中生代의 공룡을 희화화한 「아기공룡 둘리」로 널리 알려진 만화가 金水正씨(40)가 지난 10년간의 작품을 한데 모아 전 20권의 개인전집(서울문화사)을 국내 만화가로는 최초로 선보여 화제가 되고 있다.

87년과 88년에 애니메이션으로 제작, TV를 통해 방영된 바 있는 「아기공룡 둘리」를 비롯해, 「오달자의 봄」 1·2권, 「자투리반의 덧니들」 1·2권, 「홍실이」 「귀여운 쪼꼬미」 등 13편의 작품이 실려 있는 이 전집은 아동만화와 더불어 청소년용 만화까지 곁들여져 있는 것이 특징으로, 성인만화에 무방비로 노출된 청소년들에게 좋은 읽을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70년 역사의 우리 만화계에 새로운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 점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만화가 일회적 소모품으로 短命할 수밖에 없다는 통념을 깨는 작업으로, 해적판 일본만화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만화의 '중심잡기'로 받아들여졌으면 한다"는 김수정씨는 이번 전집이 15년 만화생활의 중간평가적 의미도 있다고 덧붙이며 "10년 전의 만화가 지금에 와서 과연 생명력있게 읽힐 수 있는가에 대한 실험성도 있다"고 밝힌다.

그런 김수정씨는 만화가 귀하던 시절 글도 모르면서 형을 따라 찾던 만화대본소의 풍경과 만화의 묘미를 잊지 못한다. 인쇄매체로는 유일한 놀이였고, 그때의 대본소는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독서실의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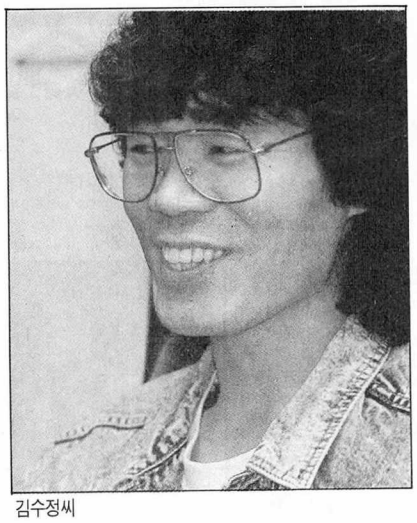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깊었던 작품으로 그는 박기정씨의 「가고파」 「들장미」 「은하수」 등을 꼽는데, 계보가 없는 우리 만화계에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좋은 만화영화를 스스로 만들어 보는게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만화영화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고쳐보겠다는 욕심 때문이지요. 제작비나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 대로 일본의 '아톰'이나 벨기에의 '스머프' 같은, 국가를 대표하는 만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박씨가 자신에게 끼친 영향은 의미가 컸고 그렇게 해서 만화의 '재미'에 입문한 그가 '만화가'로 입문한 것은 1975년 한국일보가 주최한 신인만화공모에 당선하면서부터. 그러나, 만화가로 정식 입문했을 뿐 그 이후 5년여의 '피라미'시절의 고통은 그 나이 동료들이 겪었던 그것과 다르지 않았다. 특히 경제적 어려움보다 그를 괴롭힌 것은 작품에 대한 정열이었다.

1980년 1남1녀의 아이들이 커가면서, 가장으로서의 책임과 작가로서의 변신이 절박해진 김수정씨는 그동안의 작품을 검토, 명랑만화가 자신의 체질(?)임을 결론짓고는 6개월동안 변신을 시도한 끝에 「1남4녀 막순이」를 발표하면서 새롭게 태어난다. 1년 후 「오달자의 봄」 등 후속편을 내놓으면서 제자리 굳히기에 성공한 것.

"평범한 사람들의 모습 그대로를 그리고자



김수정씨

합니다. 삶의 아름다운 조각을 돌려주고자 하는 것이 제 작업의 이유입니다."

만화를 문학과 회화의 결합이 아닌, 독특한 개성을 지닌 예술의 한 장르로 생각하는 그의 일과는 만화가 전부. 낮에는 시대적 감각을 회복하기 위해 젊은이들이 많이 꼬이는(?) 장소를 찾고, 밤에는 낮의 성과를 바탕으로 작화를 한다.

그가 인기만화가로서의 발판을 굳힌 것은 역시 「아기공룡 둘리」의 탄생과 궤를 같이 한다.

"구상은 80년 초로 기억합니다. 당시의 심의 규정을 통과하기 위해 동심을 의인화할 필요성이 있었죠. 식상한 동물을 피해, 공룡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원시를 배경으로 삼자니 박수동씨의 「고인돌」과 이미지가 겹쳐서, 둘리를 현대로 데려왔죠."

고육지책이 성공요인이 되고 만 셈. 공룡을 소재로 한 외국의 걸작 만화 「최후의 공룡 덴버」나 「공룡 거티」와 「둘리」의 차이점을 문화적 틀의 차이로 비교하는 그는 외국의 공룡은 '겉늙어' 보인다고. 「둘리」와 다른 작품에서 느껴지는 그의 개성있는 만화체는 계획적인 검토 후에 생긴 것이다. 국내만화와 일본만화가 갖추지 못한 만화체를 구사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분석과 검토가 뒤따랐다.

스포츠신문 만화의 저질시비에 대해 "새로운 가능성을 지닌 지면의 훼손"으로 잘라 말하면서 "붐이 일고 있는 만화계와 신진만화가들을 위축시키지는 않을까" 우려한다.

아버지가 자신들을 모델로 삼은 성교육만화 「귀여운 쪼꼬미」를 「둘리」보다 더 좋아하게 된 두 남매는 연재가 끝나갈 예정이라 섭섭해 한다고 말하면서 빨리 보기 위해 작업실을 침입하는 아이들을 본의 아니게 야단칠 때도 있다며 웃는다.

"경제적인 여유가 생긴다면 좋은 만화영화를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소원입니다. 지금까지 보아온 만화영화의 문제점을 어느 정도 고쳐보겠다는 욕심 때문이지요. 제작비나 시간적인 여유가 생기는대로 일본의 「아톰」이나 벨기에의 「스머프」와 같은, 국가를 대표하는 만화를 만들고 싶습니다."

'한국적인 만화'의 부재와 끊이지 않는 저질시비, 유통구조개선의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있는 가운데 출간된 이번 김수정씨의 개인전집이 우리 만화계 분위기 쇄신의 촉매제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만화를 아끼는 모든 이들이 한결같을 것이다.

—최태원 기자

*마루벌은 산마루의 마루, 벌판의 벌을 의미하는것으로 세상의 으뜸을 뜻합니다

마 루 벌 기획·출판

서울시 용산구 원효로 1가 40 - 6
Tel: 701-2391(대표) ● Fax: 701-2395

"마지막까지의 정성"으로 …

사보 잡지 신문 단행본 홍보물

- 최첨단 전자출판 편집시스템인 매킨토시로 제작
- 작업과정을 한눈에, 본문과 그래픽이 동시처리
- 종이·인화지·필름등 원하는대로 출력됩니다
- 면으로 편집, 번거로운 대지작업은 필요없읍니다
- 다양한 서체, 글자변형, 컷도안이 자유롭습니다

경력사원모집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경력사원을 찾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 연락 바랍니다

모집부문: 영업직·경리직
자격: 전대졸, 경력 3년이상
구비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